

미일, 중국 일본군사압박 논의…협력 재확인

日 국방 “레이더 조준 등 설명…심각한 우려 표명”

美, “미일동맹 중요…아시아·태평양의 침략 억제”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2일(이하 일
본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군 항공모
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
이더 조준’ 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트
해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고
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6
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양측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
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고이
즈미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X·엣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照射·경상에서 비출) 사안,
9일 발생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의
중국·러시아 폭격기 공동 비행과 관련해
경위와 대응을 (해그스 장관에게) 설명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정
보를 발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일본)
는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반론을
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
어두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
소통하면서 협력을 지속하고, 내년 1월 미
국에서 대면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갖는 미일 정상.

증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 중
국의 군사 활동들, 서남도서를 포함한 일
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
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미일동맹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에서의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그들의 의지
를 강조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소개했다.

미국은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들’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썼다. ‘레이더
조사’, ‘중러 폭격기 일본 주변 공동 비행’
등 구체적 사례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그런 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우려 표명 표
현도 자료에 담지 않았다.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디카이치 시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
사사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동맹인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
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

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전략 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
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비행에 대응해 지

난 10일 동해 쪽 공域에서 합동 훈련을 하
며 중국의 군사 행동을 사실상 경계했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이번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방위지출

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
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써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
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다만, 권씨가 작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

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
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
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
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미 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희대의 사기”…최대 12년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결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건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
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
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
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
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

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
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

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
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

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
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
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
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